

이스라엘이 Shatha Odeh를 체포한 것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건강권에 대한 공격이다

민중건강운동(PHM) 성명
2021년 7월 9일

2021년 7월 7일, 이스라엘군이 Shatha Odeh 건강노동위원회(HWC) 소장을 라말라 자택에서 체포했다. 건강노동위원회(HWC)는 팔레스타인의 가장 중요한 비영리 의료 기관 중 하나이며, Shatha는 국내외적으로 존경받는 시민사회 리더이다. 그녀는 팔레스타인 비정부기구들의 네트워크인 팔레스타인 비정부기구 네트워크(PNGO)의 회장이고 민중건강운동(PHM) 글로벌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다.

Shatha는 건강과 사회 정의를 위한 전세계 투쟁의 선두에 있는 용감한 여성들 중 한 명이다. 그녀는 권력에 진실을 말하며 대단한 용기를 가진 모범적인 리더일 뿐 아니라 뛰어난 유머 감각을 가진 배려심 있는 친구이자 동지로도 알려져 있다.

Shatha의 체포는 건강노동위원회(HWC)가 6개월 동안 본부를 닫으라는 이스라엘 군부의 명령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일어났다. 이 최초의 공격은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해 여러 기관으로부터 널리 비난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팔레스타인 점령지(OPT)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의료 필요에 대한 재앙적인 결과”를 강조했다. 코로나 19의 4차 유행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건강노동위원회(HWC)에 대한 공격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대처 능력을 더욱 약화시킨다. 점령국으로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건강권에 대해 책임이 있다.

이러한 공격은 이스라엘 점령군에 의한 팔레스타인 시민사회단체의 범죄화 증가라는 맥락에서 발생한다. 2019년 1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이스라엘이 “채택하고 제한한 법률이 인권단체를 선별해 규제를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의 운영에 관리상의 제약이 부과되고 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일하는 단체들을 비합법화하기 위한 캠페인을 통해 그들의 재정원이 약화되고 있다. 인권 활동가들이 체포되고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스라엘 단체와 해외의 유대인 단체들을 포함한 여러 단체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인권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표적이 되고 있다.

국제인권연맹(FIDH)과 세계고문방지기구(OMCT)는 이스라엘이 시행중인 세 가지 비합법화 전략에 대해 말하고 있다. 첫째, 테러조직이나 반유대단체와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한다. 둘째, 단체들을 지지하는 조직이나 개인에 압력을 가한다. 셋째, 단체들의 모든 재정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헌신적이고 끈질긴 옹호자인 Shatha Odeh의 체포와 건강노동위원회(HWC)에 대한 제약은 팔레스타인 시민사회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공격의 추가적인 증거일 뿐이다.

민중건강운동은 Shatha의 체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녀의 즉각적인 석방과 건강보건위원회(HWC)의 중요한 활동에 대한 보호를 요구한다. 우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운명과 건강을 진정으로 염려하는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들이 인도주의적 시민사회 단체의 범죄화 및 비합법화에 대한 우리의 규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Shatha Odeh를 석방하라!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건강을!